



## 한결이의 눈물



대학교 졸업 후, 상경해 사촌언니네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다. 취업은 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직장생활과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무척 힘들었던 나는 그 당시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심정으로 생활했다. 그런 나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준 건 다른 아님 조카 한결이었다. 한결이는 사촌언니의 딸이다. 10살이 된 지금도 산타 할아버지가 존재한다고 믿고, 달에는 방아 찹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철석 같이 믿는 그 누구보다 맑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이다.

바쁜 워킹 맘인 언니를 대신해 난 한결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보다 이모인 나를 더 따랐고, 나도 그런 한결이가 더 없이 사랑스러웠다.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와 근거리에서 살게 되면서 한결이와 나는 더욱 더 애뜻한 사이가 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통화에 문자메시지는 기본이고 주말엔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꼭 만나고야 말았다. 이런 우리를 두고 남편은 별스럽다며 놀려댔다.

7월 어느 날, 여권 신청을 위해 나는 한결이를 데리고 시청에 갔다가 정문을 막 나서려던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비 그치기를 기다려야 하나 하고 곤혹스러워 하던 차에 때마침 젊은

공무원 한 분이 오셔서 장마철을 대비해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산을 대여해 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3일 안으로 반납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우리 둘은 사이좋은 모녀 사이 마냥 우산 하나에 몸을 맡기고 빗속의 정취를 느끼며 걸었다. 비가 어느 정도 잦아들자 한결이는 나에게 ‘양심’에 대해 물었다.

“이모, 근데 양심이 뭐야? 할아버지가 먹는 양갱 같은 거야?”

시청에서 우산을 빌릴 때 우산 뒤에 있던 ‘양심우산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입간판을 보고 질문했으리라. 이제 막 한글을 깨친 호기심 많은 한결이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야 말겠다는 듯이 틈만 나면 한시도 쉬지 않고, 궁금증에 대해 폭풍질문을 쏟아내곤 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루였을 것이다. 갑작스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라고 알려주자니 그걸 이해하긴 아직은 무리인 것 같아 나름 고심 끝에

“할아버지께서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사탕을 혼자 먹지 않고, 할아버지 말씀대로 나눠 먹는 게 양심이야.”라고 말해 줬다.

이보다 더 나은 설명은 없을 거라며 혼자 뿌듯해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한결이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천진하게 웃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을까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기고 언니 가족과 우리 부부는 우아함이 묻어나는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와인도 곁들여가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 형부는 짐짓 장난스러운 얼굴로 대뜸

“처제, 순수한 우리 딸 영혼에 스크래치 난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라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똥딴지같은 소리가 싫어 어리둥절해 하니까 언니가 그간의 자초지종에 대해 이야기 해줬다. 사연인즉, 주말 저녁 범죄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던 중에 별안간 한결이가 끼이끼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것이다. 딸의 갑작스런 곡소리에 너무 놀란 형부와 언니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병병했다. 우선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왜 울었냐고 물었더니,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나쁜 사람은 TV에 나오는 저 아줌마들처럼 경찰 아저씨가 붙잡아 가는 거죠? 실은 이모가 며칠 전에 시청에서 양심우산을 빌리고 가져다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이모도 나쁜 사람이라서 붙들려 가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 한결이도 영영 못 보는 거예요?”라며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달고 되물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니가 이모한테 우산 돌려주라고 한결이가 이야기 해보지 그랬냐고 하니까 이모가 아가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했다. 자기가 대신 가져다주려니까 가는 길을 몰라서 그만두었다고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 이모 정말 잡아가면 어찌냐며 울먹거리더라. 몇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눈물 그치기를 멈추지 않는 한결이 때문에 언니는 적잖이 애를 먹은 모양이었다.

아. 뿔. 싸. 둔탁한 무언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했다. 우산 하나가 이렇게 크나큰 화근이 될 줄이야.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나의 육중한 몸을 구겨서라도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야 모든 일이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한결이가 왜 우리 집에 와서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했는지, 멍하니 현관을 바라봤는지 알 것 같았다. 며칠이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우산을 보면서 그 여리고 착한 애가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을 것 생각하면……. 나 또한 오며 가며 간간이 보이는 우산 때문에 찜찜하긴 했지만 이내 육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나 하나 반납 안 한다고 해서 천지개벽 나는 것도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다.

맞다. 부끄럽지만 고백컨대, 난 그저 귀찮았을 뿐이다. 지금에서야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싶다.

“은영아,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야.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말도 있잖아. 어른들이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모범적인 언행을 해야지. 엇그제 내가 동창회를 갔었는데 글썄 남자 동창 하나가 자랑삼아 떠벌린다는 얘기가 가관도 아니더라. 놀이공원에서 36개월 이상은 어린이요금을 내야 하는데 자기 아들이 몸집이 작다는 것을 이용해 베이비요금만 내고 다녀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동창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하는 거 있지. 얼마나 낮부끄럽던지. 정작 본인은 알뜰하고 재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랄까 싶은 게 안타까운 마음뿐이더라. 너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만큼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비단 이번 우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언니는 부드럽지만 강한 말투로 빠있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후에 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IQ나 EQ보다는 도덕지능인 MQ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한다. 낮은 도덕지능은 인생에서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도덕지능을 형성하는 것은 뇌 부분 중에서도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하고서도 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한다. 평생에 걸쳐 발달하는 전두엽은 특히 3-4세부터 7-8세에 걸쳐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열 살 전에 철저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난 둘도 없이 소중한 조카에게 하마터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말이지 나쁜 사람이 될

뻘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뒷목이 뼈근하고, 모아 쥔 두 손에 땀이 나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바로 그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우산을 제자리에 돌려주고, 버리고 왔던 내 양심을 되찾아왔다. 한결이에게도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다짐에 다짐을 하고서야 우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뒤늦게 딸의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셨는지 전화로 1시간 남짓, ‘도덕과양심’에 대한 지루한 교장 선생님의 훈화말씀을 이어 가셨다. 그 후로도 같은 이야기를 세 차례나 더 듣고서야 끝이 났다.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바른생활 맨’이라고 칭송 받을 만큼 공중도덕과 예절에 대해 엄격하신 당신에게 딸의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

그날 이후, 그전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의식조차 하지 않고 서슴없이 해왔던 모든 행동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싫어 일부러 자는 척 하기 일쑤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무단횡단에 과속, 암체 끼어들기까지. 이 밖에도 말로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앞으로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조카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나리라.

한결아, 그때는 이모가 미안했어. 이모한테 많이 실망했지? 이제 ‘나쁜 사람’ 말고 양심 지키고 사는 ‘좋은 사람’ 될게. 사랑해. 